

동물의약품 허가 업무 청렴도 UP!
케이(K)-동물용의약품 경쟁력 UP!

2025. 6.

I.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환경변화]** 동물용의약품 산업 규모는 세계시장 성장 전망*(연평균 7.9% ↑)에도 국산 제품의 국내외 시장의 입지는 축소 추세**

* (세계시장 성장 전망) ('22) 61조원 → ('32) 129조원 (연평균 7.9% ↑)

** (국내외 시장규모) ('22) 1.43조원 → ('23) 1.30조원 (전년비 9.1% ↓)

- 규제 개선 통한 산업 구조 혁신(단순 제조 중심→신약·신기술 개발) 필요

- **[업무특성 및 외부평가]** 동물용의약품 제조품목 인허가는 업체의 손익 및 시장 주도권 등과 직결되는 업무로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 안전성·유효성 등 적합 여부 결정에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외부 평가시 업무 투명성 분야 낮은 평가 등 청렴성에 대한 우려 상존

* '23년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청렴체감도 측정대상 업무(평균 90.5점) 중 낮은 평가(86.0점)

- ⇒ 민원 만족도 향상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 인허가 업무 투명성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고 관련 규정 정비 필요

II. 주요 내용

- **[업무분석]** 업무 고유 특성 및 내·외부 환경 영향 분석(SWOT 기법 활용)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 (전문성) 동물약품 인허가 업무 (기술검토·시험 등)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검역본부의 일원화된 조직체계 · (공익성) 정부기관으로서의 높은 책임성 및 사회적 가치 추구 (동물복지 증진 등)	· (복잡한 절차) 인허가 심사 규정 20종 이상, 품목별로 절차 상이(구비서류·검토 부서·소요기간 등) · (인력 부족) 업무량에 비해 부족한 인력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 (산업 발전) 경쟁력 있는 제품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로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 및 기업 성장 잠재력 실현 · (신뢰 형성) 인허가 절차 개선으로 이해관계자와 보다 투명한 신뢰 형성	· (이해관계자 불만) 다양한 업허가 형태(제조·수입) 및 제품 생산 환경 → 모두가 만족하는 대안 마련 어려움 · (규제 일관성 저하) 다양한 법적 규제에 대한 담당자 재량적 해석으로 업무의 일관성 및 투명성 위협 가능성

- **[개선과제 도출]** 청렴도 제고를 위해 ^{과제1)}민원처리시스템 개선, ^{전략2)}신약 개발 기술검토 운영 개선, ^{전략3)}인허가 사전검토제 도입 추진 등 3개 과제 추진

구 분		개선과제
기획 포착 (WO전략)	W : 복잡한 절차·인력 부족을 시스템 개선을 통해 보완하여 O : 신뢰 관계 형성의 기회로 활용	1. 민원처리시스템 개선
역량 확대 (SO전략)	S : 전문성 및 공익성을 활용하여 O : 대상 업체 잠재력 실현 및 기관 신뢰도 제고	2. 신약개발 기술검토팀 신설 운영
선택 집중 (ST전략)	S : 전문성 및 공익성을 활용하여 T : 규제 일관성 확보 및 이해관계자 불만 완화	3. 인허가 사전검토제 도입 추진

□ [개선과제 추진] 동물의약품 등 제조품목 허가 업무의 투명성 및 체계 개선

[전략 1] 업무 투명성 강화를 위한 '민원처리시스템 개선'으로 청렴도 제고

문제점 • 인력 부족에 기한 업무 절차·결과에 대한 관리 및 안내 부족으로 청렴제감도 낮은 평가		
기존	개선	추진성과
• 소수 인력(13명)이 다수 접수건 ("23년 5,996건) 관리 ☞ 절차 전반(규정·구비서류·소요 기간진행상황 등) 및 처리 결과 안내 부족에 대한 불만 상존	• 민원상담 관리 체계화(동물약품시스템) - 민원상담 대장 관리 강화("24년 5월~) - 방문상담 온라인 예약 창구 개설 및 운영("24년 9월~) ☞ <상담 신청-상담 준비-대면상담> 3단계 관리로 상담 내실 확보	• 업체 대상 예약 상담 활성화 (21건) 및 업체 만족도 향상 • 민원시스템 개선으로 업무 투명성 강화 및 적극행정 등으로 청렴도 제고

[전략 2] '신약개발 기술검토팀 신설 운영'으로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

문제점 • 관련 기술지원 부재에 따른 업계 신약개발 및 상품화 난항으로 업무의 전문성신뢰성 불신		
소통내용	추진노력	추진성과
동물약품 업계 간담회 “신약 개발 및 인허가 관련 도움을 받고 싶어요”	• 기술검토팀 신설 운영("24년 5월~, 30개 팀) - (팀제 도입) 품목관리자(팀 내 “청렴지킴이”) 중심 정보 및 의견 공유 활성화 - (대외 소통) 검토시 신청 업체 · 외부 전문가와 지속 · 적극 소통	• 제도 성공적 안착(상담 8건, 협의 등 3건, 검토결과 통보 7건) • 신약 관련 사전 검토 및 의견 공유로 ①일관된 심사기준 확립, ②구비서류 설계 · 보완에 활용→중소업체 편의 증진 및 기관 신뢰도 제고

[전략 3] '인허가 사전검토제 도입'으로 불확실성 해소 및 산업계 만족도 향상

문제점 • 인허가시 특정 단계 관련 절차 장기화·복잡화 사례 빈발로 업계 불만 · 불신 증가		
소통내용	추진노력	추진성과
동물약품 업계 간담회 “품목 허가 과정의 특정 단계에서 많은 시행착오·시간 소요가 발생해요”	• 안전성 · 유효성 자료 등 사전검토 및 정식 허가시 별도 심사 면제 • 검역본부 고시 등 관련 규정 제 · 개정 추진 -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정적 운영 도모	• 첨단동물용 의약품 시범 도입 • 불확실성 완화 및 신속 제품화 가능성 확대

□ [추진중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내외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및 소통 강화로 실효성 있는 개선과제 추진으로 청렴도 향상 기대

- (내부) 업무 부담, 복잡한 절차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애로사항 극복
- (외부) 이해관계자간 입장차, 실현 가능과제 도출을 위한 장애요인 극복

	장애요인	극복방안
<대내> 기관장 주도 추진 동력 강화	<개선과제 1,2,3 추진시> ①(업무 부담) 인허가 등은 민원성 업무로 방문 예약상담, 기술검토팀 신설, 사전검토제 등 추가적 업무 부담으로 인식 ②(소극적 자세) 조직 구성원 협조 부족	- (소통강화) 기관장 주재 회의를 통한 직원 의견 수렴 - (조직정비) 부패방지협의회를 활용한 체계적 지원 - (동기부여) 통합성과평가 반영, 청렴도 평가 우수부서 포상 등 참여 동기 부여 ☞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으로 직원 공감대 형성 및 추진력 확보
<대외> 제도개선 TF구성 및 운영	<개선과제 3 추진시> ①(체계 미구축) 통합적 대응체계 미구축으로 상호 입장 차이가 큰 상황 ②(인력 부족) 소속기관 전담조직만으로는 사전검토제 본격 운영 및 실효적 · 체계적 산업 지원에 한계	- (TF 구성) 2개 협의체(이해관계자, 실무자) 운영 - (소통 및 협력) 기관 내외부 의견 공유 및 협조 체계 구축 ☞ 사전 검토제 비롯한 동물의약품 인허가 체계 개선 및 실현 가능성 증대

Ⅲ. 주요 추진성과

□ 정성적 성과('24)

- (민원처리시스템 개선) 방문상담 체계적 관리 개선 및 사전예약 도입으로 투명성 제고와 소극행정 등 민원처리에 대한 인식도 개선

구 분	외체감도	분패인식	부정척	특혜제공	업무명	절차반	감정취	사익추구	소행경
2023년	86.0	86.0	90.2	89.0	72.9	87.1	87.6	89.7	80.0
2024년	88.7	88.7	91.2	88.9	80.1	90.3	89.5	93.1	84.6

- ▶ 만족도 사례: ① 중앙바이오텍(배○○ 부장 외 1인)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변경건 상담('24.9.4.)
⇒ “방문상담 사전예약과 담당자 면담을 통해 진행일정 및 절차를 이해할 수 있었고 투명해서 좋았다.”
② 펫팜(유성환 대표외 3인) 제조업허가 상담('24.9.27.)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담당자를 바로 조회하고 면담 일정 조율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 (신약개발 기술검토팀 신설 운영) 기술검토팀의 소주기 서비스로 허가기간 단축 및 심사의 전문성·일관성 강화하여 신뢰성 확보(상담 8건, 협의 등 3회)

- ▶ 검토 대상을 화학제제 신약에서 전체 동물용의약품 신약(백신 제외)으로 확대 추진

- ▶ 만족도 사례: 큐라클(전○○ 차장 외 4인) 동물용의약품 신약 임상시험계획서 기술검토건 협의('24.9.23.)
⇒ “개발 중인 신약을 기술검토 담당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향후 임상시험계획서 설계 및 보완에 큰 도움이 되었다.”

- (인허가 사전검토제 도입) 제도개선 TF팀 운영하여 사전검토제 도입 및 확대 추진으로 불확실성 해소 및 신속 제품화 가능성 확대로 산업계 만족도 향상

- ▶ 첨단동물용의약품 대상 우선 도입('25), 향후 검토 대상 확대 추진

- ▶ 언론 보도: 동물용의약품 제도개선안 윤곽, 해외임상시험 인정, 품목허가 사전검토제 도입(데일리벳, '24.10. 23.)
⇒ “출시 준비 과정의 불확실성으로 진입을 망설이는 기업이 많다. 사전검토제 도입은 좋은 시도 …허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정량적 성과('23~'24)

- (인허가 기간 단축) 적극적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 신약 개발 기술검토 운영 등으로 정책수요자가 요구하는 동물용의약품 인허가 소요기간을 단축

구 분	23년		'24년		처리기간 단축
	민원건수	처리기간	민원건수	처리기간	
실 적	5,996	14.9	5,558	12.8	2.1

Ⅲ. 우수사례 선정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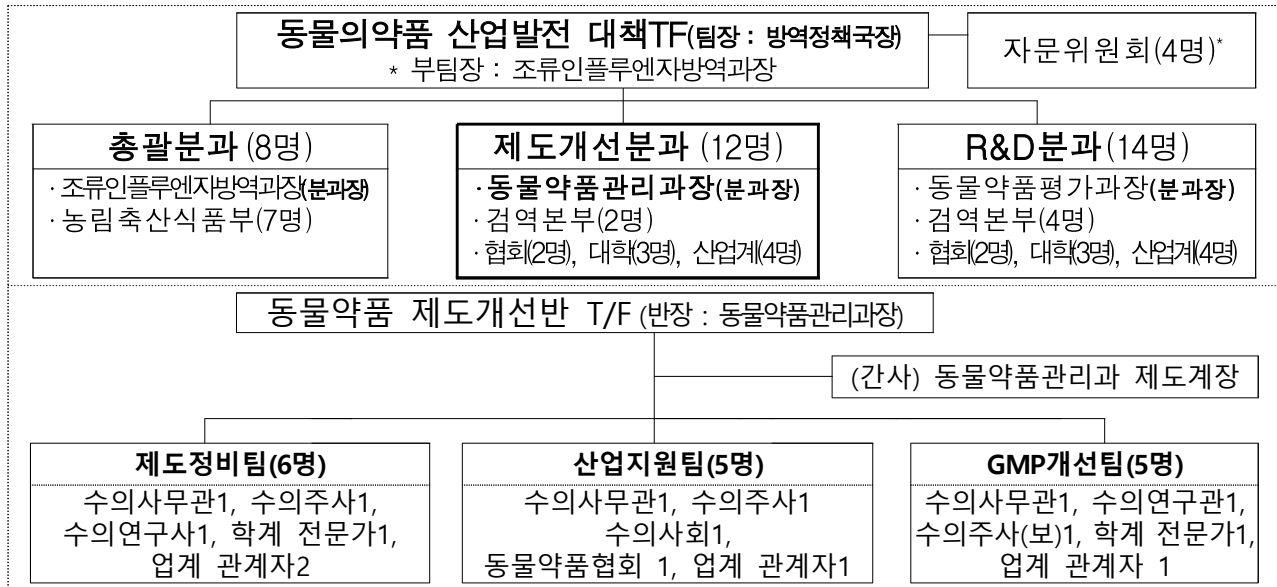
- [협업 제도개선]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여 인허가 제도개선 등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여 청렴도 제고 및 민원 만족도 향상

✓ 해당 사례가 '22년도~'24년도 권익위에 제출한 '부패취약분야 개선 과제'에 해당 여부	예 ☒	아니오 ☐
✓ 과제 제출 년도 * ('22년도) 청렴노력도 평가 ⑤번 ('23년도) 청렴노력도 평가 ②번 ('24년도) 청렴노력도 평가 ②번	'22년 ☐	'23년 ☐
✓ '22년도~'24년도 미평가기관에 해당(자율과제 제출)	예 ☐	아니오 ☒

참고 1

동물용의약품 제도개선 TF팀 운영 및 산업발전방안 마련

□ 동물용의약품 제도개선 TF팀 운영



□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대책 TF 주요 회의실적

- 동물용의약품 산업발전 대책 마련 TF 전체회의(kick-off 회의, 2.22)
 - (주요내용) TF 운영 방향일정, 주요 검토과제(안) 설명 및 의견 교환
- 동물용의약품 산업발전 대책 마련 TF 전체회의(3.22)
 - (주요내용) 분과별(총괄-제도개선-R&D) 추진상황 공유 및 향후 계획 등 논의
- TF 2개분과(제도개선분과, R&D분과) 중간 점검회의(2회, 4.22-6.4)
 - (주요내용) 과제별 추진상황 설명 및 논의(제도개선분과 9개 과제, R&D분과 6개 과제)
- TF 제도개선분과(제도정비팀) 제도개선 관련 회의 개최(4회, 2.16-3.15-5.17-9.9)
-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대책 안건 검토 관련 업계관계자 자문회의(7.19)
- TF 제도개선분과(산업발전팀) 제도개선 관련 회의 개최(3.6)

□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방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5. 4. 2.(수) 10:30

4. 2.(수) 10:30

2025. 4. 1.(목) 09:00

케이(K)-동물용의약품, 신약 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 기반 다진다

· 농식품부,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 발표

· R&D 강화, 규제 혁신, 수출지원 확대, 품질 및 안전성 강화 등 4대 전략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국내외 수요는 축산물 소비 증가, 가축전염병 지속 발생, 반려동물 양육 증가, 원헬스(One Health) 중요성 부각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 제품은 제약 선진국의 최조(오리지널) 제품과 중국인도 등남아 등 선진국의 중저가 제품 사이에서 경쟁 입지가 축소되고 있어, 신약 개발 핵심기술과 품질 경쟁력 확보 없이는 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국내 산업이 단순 제조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신약 등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과 기술혁신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전략인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였다.

농식품부는 2035년까지 산업 규모를 3배(21.3→64.0조 원), 수출 규모를 5배(20.3→101.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①연구개발(R&D) 강화, ②규제 혁신, ③수출지원 프로그램 등 확대, ④품질 및 안전성 강화를 4대 전략으로 하여, 연구개발(R&D) 혁신 프로젝트 추진, 신약 허가(패스트트랙) 체계 구축, 산업 육성법 제정,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선진화 등 1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제관계장관회의

25-11-5

(공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방안

2025. 4. 2.

관

계

부

처

합

동

동물의약품 산업 발전방안(25.4.2)

III. 추진 방안

비전

지속가능한 동물용의약품 산업 생태계 조성

목표

2035년까지 산업 규모를 3배, 수출 규모를 5배 수준으로 확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① [시장 확대] 국내시장 규모

(25) 1.3 → (25) 2.5 → (25) 4.0 조 원

② [수출 경쟁력] 수출액

(25) 0.3 → (25) 0.5 → (25) 1.5 조 원

③ [기업 육성] 연평균 500억원 이상 (연평균 300억원 이상)

(25) 5 → (25) 10 → (25) 15 개사 (13) (16) (20)

전략

4대 전략

10개 세부 과제

1. R&D 강화

· 신약 개발 핵심기술 확보 및 전략특허 육성

① 동물용의약품 R&D 혁신 프로젝트 추진

② R&D 인력·구축

2. 규제 혁신

· R&D 성과 확산 및 산업화 촉진

① 인허가 제도 개선

② 산업 지원 기반 정비

3. 수출지원 프로그램 등 확대

· 기업의 지속 성장 견인

① 수출지원 지원 강화

② 금융 지원 확대

③ 인력 교육 및 정책지원 강화

4. 품질 및 안전성 강화

·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국내 제조기반 구축

①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선진화

② 동물용 백신 원료 품질관리 강화 (시드-로트 제도Seed Lot System) 도입

③ 유통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

2. '규제혁신' 중 인허가 제도개선

참고 2

민원처리시스템 개선(방문예약 상담 개설)

홈 > 마이페이지 > 방문상담예약

접근성가이드

방문상담예약 신규신청

* *로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과의 상담을 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업무 신청 처리 확인, 예약 확장을 위한 연락 등지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휴대전화,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6개월간 보유 및 이용 후 폐기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민원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② **■ 신청인 정보**

신청인 구분	☐ 개인회원 ☒ 법인회원	회사명	(주)고려비엔피
성명	이성혁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 예약완료 후 결과가 SMS 및 휴대전화로 발송되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③ **■ 접수 내용**

희망 담당부서	선택	희망 상담일시	- - - - - 시간 - 시 - 분 - 분
희망 담당계(실)	선택	신청분야	선택
희망 상담장소	선택	※ 담당공무원의 근무상황에 따라 희망 상담일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⑤

상담주제	
상세 상담내용	

첨부파일

파일업로드

⑥

목록
신청

⑦

-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체크합니다.
- ②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전화번호란에 휴대폰번호 입력 시 진행단계별 SMS 안내)
- ③ 희망담당부서를 선택합니다. (담당부서 선택 시 희망 상담일시 설정 가능)
- ④ 신청분야를 선택합니다. (신청분야 선택 시 분야에 따른 담당계(실) 및 상담장소 자동으로 세팅)
- ⑤ 상담주제 및 상세 상담내용을 작성합니다.
- ⑥ 상담에 필요한 첨부파일이 있을 시 버튼을 눌러 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 ⑦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예약신청을 진행합니다.

동물약품시스템 방문상담 예약 화면

- 민원인 방문 상담 일정 및 내용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 민원 업무 처리 공정성 확보
- (민원인) 사전 일정 조율 및 상담 내용 전달로 민원 편의 확보
 - (검역본부) 상담 일정 조율을 위한 전화응대 시간 단축 및 상담 내용 사전 인지 등 업무 효율성 증대

참고 3

인허가 사전검토제 도입 관련 규정 제·개정 추진현황

구 분		주요 내용	추진사항
시행령	■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사전검토에 관한 권한 위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검역본부장	제·개정(안) 마련
시행규칙	■ 「동물용의약품등 취급 규칙」	- 사전검토의 범위(제10조의3제1항 신설) * ①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②임상시험계획에 관한 자료, ③ 그 밖에 허가 신고 등에 필요한 자료 - 세부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제10조의3제4항 신설) - 사전검토 신청서(별지 제6호의6서식 신설)	제·개정(안) 마련
검역본부 고시	■ 「동물용의약품등 사전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정의(사전검토, 검토팀 예비검토, 보완설명회 조정회의 등) - 사전검토의 대상 * (대상)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품 및 가전법에서 주사 명령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 - 사전검토 신청 및 제출자료의 작성 * ①사전검토 신청서(제품명, 주성분, 분류, 검토요청 분야) ②제품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요 및 검토요청 사항 등 - 사전검토팀 구성 및 사전검토 절차 - 보완설명회(결과통지 14일 이내 신청인 요청 시) - 외부전문가 자문(필요한 경우 동약심 자문) - 사전검토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절차 - 사전결과통지서 첨부시 품목허가 자료제출 생략	제·개정(안) 마련

참고 4

언론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정자료

2025. 4. 22.(화) 16:00

4. 23.(수) 오전

메모

2025. 4. 22.(화)

농식품부, 동물용의약품 산업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송미령 장관,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 본격 추진에 앞서 업계 관계자 격려 및 건의 사항 등 청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4월 22일(화) 오후 ㈜중앙백신연구소를 방문하여 동물용 의약품 및 의도기기 제조기업 대표, 벤처기업 대표 및 R&D 지원기관 관계자 등*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중앙백신연구소, ㈜한동, ㈜삼양애니팜, ㈜이엘티사이언스, ㈜한국엘랑코동물약품, ㈜바이오노트, ㈜메디안디노스틱, ㈜지엔티파마에니멀헬스, ㈜바이오엘, (재)한국동물용 의약품평가연구원, (재)포항테크노파크 등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의 본격 추진에 앞서 업계 관계자를 격려하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더욱 충실히 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동물용의약품 산업 현황 설명 및 투자 성공 사례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으며, 기업별로 산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건의 사항이 논의 되었다. 간담회 이후엔, ㈜중앙백신연구소의 동물 백신 제조시설을 시찰하며 현장을 살펴보았다.

송미령 장관은 "연구개발(R&D) 지원 확대와 신속허가(패스트트랙) 체계 도입 등 규제 혁신을 통한 신약 개발 활성화와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선진화에 따른 정부 지원 강화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방역정책국	책임자	과 장	정승호 (044-201-2551)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담당자	사무관	조원준 (044-201-2552)

동정자료('25.4.22.)

4차산업혁명

DAILYOVET

동물용 허가약·항암제, 조건부허가로 허들 낮춘다

뉴스 정책

🔍 📄 📌

동물용 허가약·항암제, 조건부허가로 허들 낮춘다

동물용의약품 제도개선안 윤곽...제외임상시험 인정, 품목허가 사전검토제 도입

등록 2024.10.23 11:41:56

문상준 기자 ys@dailyvet.co.kr

♡ 2 👍 1

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현재 준비 중인 동물용의약품 제도개선안을 내비쳤다.

허가동물용의약품(허가약) 분류를 신설해 허가약이나 항암제 등에는 조건부 품목허가나 신속심사를 적용해 국내 출시 허들을 낮춘다. 염소 등 소수축종에 대한 동물용의약품도 심사자료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국내에서 시험이 어려운 경우 해외기관에서 실시한 자료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국내에서 비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고양이나, 필드 임상 불가능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품목허가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고, 기 허가된 약품에 대한 5년주기 갱신제를 신설해 품목관리를 효율화한다.

데일리넷('24.10.25.)